

# 프랑스 판화 옛볼까? 은암미술관 한국·프랑스 교류전

24일까지 '꼬레라송' 68점 선배 연계전시 무등갤러리서 등 다채 프랑스 판화가 파스칼 인연으로 동시대 판화 독창성·예술성 눈길

프랑스 판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은암미술관은 한국·프랑스 교류전 'COREELATION6' (꼬레라송6)을 오는 24일까지 선보인다.

연계전시로 무등갤러리, 갤러리 생각상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도 감상이 이어진다.

꼬레라송은 한국을 의미하는 '꼬레'와 교류라는 의미를 뜻하는 '라송'이 합쳐진 말로 지난 2005년 한국과 프랑스의 판화가들의 교류모임이 시작이었다.

전시에는 노정숙·김익모·김제민·장원석·채종기·채경혜·홍진숙·박인숙·정순아·강행복 10명의 한국작가와 무리엘 바움가트너·크리스틴 부비에·마리 르 브루세·소피 뒤몽·케디자 에니페르 쿠르투아·블랑딘 칼티에·파스칼 지하흐·피에르 귀린·사빈 크라프치크·로렌스 말헤르브·무리엘 모로·루크 티부르스 12명의 프랑스 작가 총 22명이 참여하며 68점 작품을 선보인다.



파스칼 지하흐 작 '상상 속의 정원'.

출품작들은 판화의 전통적 기법과 장점을 유지하면서 동시대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양국의 미술 흐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흥미를 더한다. 사라져가는 도시의 흔적들, 빛과 그림자, 폭발적인 개인의 감정, 지구를 둘러싼 소음 등 다양한 주제들이 '판화'라는 기법을 통해 새겨지고 영구적으로 찍힌다.

전시를 여는 한국과 프랑스의 판화모임 꼬레라송은 프랑스의 도시 루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창립한 단체이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 중 한명인 노정숙 작가는 지난 2005년 초청으로 프랑스 개인전을 연적 있는데, 이때 프랑스 판화가 파스칼 지하흐 꼬레라송 대표를 만났고 이는 '꼬레라송'이 결성되는 데 배경이 됐다. 이후 한국을 방문한 파스칼 작가는 워크숍, 세미나 등 여러 교류활동을 이어갔고 각국에서 한국·프랑스 교류전을 연이어서 개최하게 됐다.

올해 꼬레라송 결성 19년 창립전시회 1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 국가와 지역 유럽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열악한 광주 동시대 미술의 판화의 맥을 이어 프랑스와 한국은 굳건한 신뢰와 교류로 현대 판화예술의 기법과 가치를 나누며 교육,

연구, 전시회 등으로 확대하며 교류의 진정성을 담아내고 있다.

은암미술관 전시와 함께 연계전시도 마련됐다.

오는 24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는 한국·프랑스 교류 '루아르 강의 예술 불꽃'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며, 갤러리 생각상자에는 프랑스 예술가 파스칼 지하흐 초대전 '나무와 삶에 대한 서사'가 마련됐다. 전남대 박물관에서는 프랑스 예술가 블랑딘 칼티에 초대전이 진행된다.

파스칼 지하흐 꼬레라송 대표는 "광주와 루앙이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두 나라가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각자의 시각을 풍성하고 더 나은 성장으로 도모했다"며 "판화가들은 자신의 시대, 욕망, 일상생활의 수많은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원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삶은 종종 덧없는 현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판화가들은 금속, 목재 또는 플라스틱 판에 세상의 욕망을 고정하고 새긴다"고 말했다.

채종기 은암미술관장은 "이번 한국·프랑스 교류전을 통해 판화를 매개로 양국이 교류 네트워크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하며,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소외장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ACC 인문강좌 '예술을 통해 본 도시와 문화'

7~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웹툰·영화·시 등 5개 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흥미로운 주제와 더욱 알찬 구성으로 하반기 인문강좌를 운영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예술을 통해 본 도시문화'를 주제로 7~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ACC 극장3에서 'ACC 인문강좌'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ACC는 △웹툰(7월) △영화(8월) △시(9월) △음악(10월) △사진(11월) 등 총 5개의 강의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31일에는 최고 조희수 20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웹툰 '조선왕조실록'의 작가 무적핑크(변지민)가 'K-역사도 케이팝(K-POP)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역사 콘텐츠의 미래를 조명한다. 한국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등에 수출한 웹툰 '조선왕조실록', '세계사톡', '삼국지톡'의 사례를 통해 같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성향이 다른 동북아시아 독자들을 만나며 얻은 작가적 통찰력을 공유한다.

이어 오는 8월 28일에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영화가 빛나는 밤'의 진행자이자 영화전문 저널리스트 이지혜 씨와 함께 그녀의 인생 영화 속에서 발견

하는 도시의 얼굴과 욕망을 살펴본다. 영화 '1987', '퍼펙트 데이즈', '건축학개론', '존위4' 등 영화에 나타난 도시의 단면들을 분석하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나히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예술의 실천적 역할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현대 시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공존의 방식에 대해 고민을 나눈다. 나 교수는 지난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뿌리에게'로 등단했으며 '그 곳이 멀

지 않다',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다.

오는 10월 30일에는 안우성 지휘자와 함께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알맞은 클래식 음악을 알아본다. 안 지휘자는 JTBC '특파원 25시' 등 다수의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딱딱한 음악 사나 어려운 클래식 음악 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들로 친근하게 펼쳐지는 클래식 이야기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27일에는 디지털 시대에 만공공통어인 사진으로 스토리텔링 된 콘텐츠를 전하는 시각 전문기자이자 풀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강형원 사진가와 함께 '사진으로 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 한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명을 문화유산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차별화하는 요소를 함께 찾아본다.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 실천하고 있는 ACC는 이번 5개 강좌 모두 동시 수업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로,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AC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실시한다. (ACC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하반기 인문강좌는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했다"면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강의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아트위캔' 초청 스페셜 콘서트 개최

24일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사)한국발달장애 인문예술협회 아트위캔(대표 왕소영) 소속 발달장애연주자들을 초청한 스페셜 콘서트를 오는 24일 오후 1시 중앙홀에서 연다.

아트위캔은 전국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발달장애 회원 350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지난 6월에는 대한민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해 이탈리아 로마와 페자로에서 국제교류공연을 펼쳐 현지인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번 국립나주박물관 초청공연 '아트위캔과 함께하는 Special Concert'에서는 소프라노 전해은(지적장애), 클래식 기타 이상현(자폐성장애)과 플루트 최유진(자폐성장애), 클라리넷 김주현(자폐성장애), 피아노 임유진(지적장애), 기타 우병욱(시각, 지적장애), 하모니카 이인혁

(시각, 지적장애) 등 5명이 윈드앙상블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지난달 이탈리아 국제교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아트위캔 그랑 팝밴드, 드럼 박호진(지적장애), 키보드1 임유진(지적장애), 키보드2 김세운(지적장애), 일렉기타 우병욱(시각, 지적장애), 베이스 기타 김도원(자폐성장애), 색소폰 이예슬(시각, 지적장애), 보컬 임세훈(자폐성장애), 보컬 김의진(시각, 지적장애), 래퍼 이인혁(시각, 지적장애)이 클래식 음악과 드라마 OST 등을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 관장은 "장애를 가졌지만 특별한 음악적 재능으로 비장애 인들과 소통하는 발달장애연주자들을 초청하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느림의 미덕을 실천하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장애연주자와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국립나주박물관  
2024 아트위캔과 함께하는  
Special Concert

2024. 7. 24. (수) 13시  
국립나주박물관 중앙홀

주최: (사)한국발달장애인문예술협회, 아트위캔  
주관: 국립나주박물관

이번 연주회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소프라노 전해은 씨는 "국립나주박물관이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최근에 준비한 뮤지컬 명성황후를 부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 광주관광공사, 베트남 관광객 본격 유치

현지 여행업체 대상 공동캠페인

광주관광공사가 전남관광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여행업체 21개사 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공동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호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여행업체 대상 호남권 공동캠페인을 추진한 것이다.

캠페인 일정은 순천을 시작으로 여수에서 1박 후, 2일차에 광주 일정으로 이어졌다. 남구 양림동 일대의 평귀마을과 근대역사문화마을, G.MAP(광주미디 어아 트플랫폼), 광주향교(다도·전통혼례체험), 광주 공연마루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이후 참여자들은 순창, 전주로 이동했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보문베트남지사 응



베트남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광주향교를 방문해 전통혼례체험을 소화했다.

광주관광공사 제공

우엔 반 안(Nguyen Van Anh) 대표는 "호남권 관광지 투어를 통해 한국의 맛과 전통 그리고 현대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번 참가자들과 함께 광주를 포함한 좋은 관광상품을 기획해 다시 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